확 뚫린 호남고속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 IC인근 귀경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다.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던 고속도로는 이날 오후 4시께 가장 밀렸다가 자정이후 전체적으로 순조로운 상황을 보였다.(헬기 조종:박창순 광주시 소방항공대장, 장화식 부기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설 연휴 막바지 귀경전쟁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일 주요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서는 간헐적으로 정체됐으나 혼잡했던 전날보다는 한풀 꺾인 상태로 평소 주말 수준의 차량 흐름을 보였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귀경길(승용차·요금소 기준)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6시간10분, 광주→서울 4시간40분, 목포→서서울 5시간 등이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막바지 귀경 행렬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정체됐다. 또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린 구간에서는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거북이 걸음을 하기도 했다.

주요 정체구간은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신탄진나들목→죽암휴게소 6.46㎞ 구간, 입장휴게소→안성나들목 6.31㎞ 구간 등 총 24.40㎞ 구간에서 시속 10~30㎞대로 정체됐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은 서초~기흥, 남구미~칠곡휴게소 구간과 천안삼거리 휴게소 부근에서 답답한 차량 흐름이 계속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은 당진~비봉, 대천~당진, 일직~금천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했다. 반면, 하행선 소요시간은 서울→광주 3시간, 서서울→목포 3시간30분, 서울→부산 4시간20분 등이었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서울로 총 37만대의 차량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오후 2시 기준 18만대의 차량이 귀경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강제 배정 없었지만 원거리 통학 '되풀이'

■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 보니…

"가고 싶은 학교는 1~2곳뿐인데 무조건 9개를 쓰라고 하면 그게 가고 싶은 학교가 됩니까?"

"집에서 2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40분 통학해야 하는 학교를 3년동안 데리고 다닐 생각을 하니 답답합니다."

지난 29일 발표한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에 대해 일부 학생·학부모·일선고교 등 당사자 모두가 불만을 토로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 일선 고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올해 광주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46개교에 신입생 1만6021명을 추첨·배정했다.

이번 배정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무더기 강제배정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해 시교육청은 후지원 선택학교 수를 최대 5개에서 9개로 늘리고, 성적등급 구분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선택학교에 원치 않는 학교까지 후지원으로 기재하게 한 뒤 그 학교에도 배정했기 때문이다.

서구 상무지구에서 동구까지 50여분간 통학하게 된 한 학생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1~2곳인데 7개를 더 쓰라고 하더니 7번째에 쓴 학교에 떨어뜨린 게 강제배정이 아니고 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시교육청은 선지원(40% 선발)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2개 학교를 선택하고, 지역 제한을 둔 후지원(60% 선발)에서 최대 9개교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5곳보다 최대 4곳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배정의 문제점을 학생·학부모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호학교 쏠림 현상이 극심해 모두를 1~2순위 희망학교에 배정할 수는 없었다"며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성적을 고르게 배치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발표 시기에 대한 뒷말도 나왔다.

시교육청이 설 연휴 직전인 29일 배정결과를 발표해 명절을 맞아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가정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불만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연휴 직전에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선 학교들도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배정과 동시에 제공했던 신입생들의 성적 정보를 이번엔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고교 한 관계자는 "배정된 학생의 석차백분율을 알려줘야 우리 학교에 어떤 학생이 배정됐는지 반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이런 정보를 차단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반배치고사가 있기 때문에 연휴 이전에 먼저 발표했다"며 "성적 정보는 3일 제공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은퇴 후 생활비 월평균 230만원 필요"

한국 성인들은 은퇴 이후의 생활비로 월평균 23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피델리티자산운용이 발간한 '은퇴백서 뷰포인트 7호'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20대 이상 600명에게 물은 결과, 은퇴 후 희망하는 생활수준 달성에 매달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평균 230만 원이었다.

200만원 이하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68%로 가장 많았으나 201만~400만원라고 답한 이도 27.3%에 달했다. 은퇴 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금액은 평균 6억490만원이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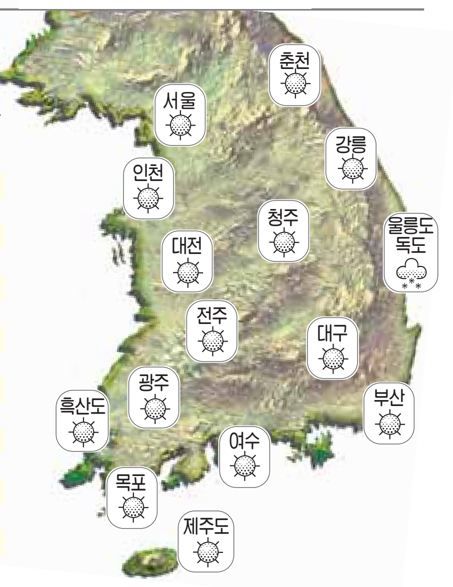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0분 해짐 18시 02분 달뜸 09시 22분 달짐 22시 02분

곳곳에 센 바람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광 주	맑음	4/6℃
목 포	맑음	4/5℃
여 수	맑음	7/10℃
나 주	맑음	3/4℃
완 도	맑음	4/5℃
구 례	맑음	3/7℃
강 진	맑음	3/4℃
해 남	맑음	3/4℃
장 흥	맑음	3/6℃
순 천	맑음	6/8℃
영 광	맑음	1/2℃
진 도	맑음	3/4℃
전 주	맑음	1/4℃
군 산	맑음	0/3℃
남 원	맑음	1/5℃
흑산도	맑음	3/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5~2.5m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04:27 16:56	09:36 22:03
여수	11:37 23:54	05:08 17: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최저/최고	-6/0	-6/3	-3/6	0/6	0/5	-3/4

내일부터 '입춘' 추위…6·7일엔 비소식도

포근했던 설연휴가 끝나고 4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일과 7일 비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3일 광주·전남 지역은 대부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2~7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입춘인 4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져 광주·전남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하 9도의 분포를 보이는 등 평년기온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6일 오후부터 7일 사이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9일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4일과 6~7일에 2~4m로 높겠고 그 밖의 날은 1~3m로 약간 높게 일겠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정부 '층간소음' 기준 마련한다

5월까지 허용 한계치 정해

아파트 주민 간 다툼의 주원인이 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令)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 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dB)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이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주부 실증단을 꾸려 실제 아파트에서 각종 생활소음들을 유발하도록 한 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검증했다.

정부는 5월까지 최종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